

코피아 22개 협력국 성과보고회 개최

농진청, 24일까지 '화합과 상생을 위한 협력 강화' 주제로 열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올해로 15주년을 맞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코피아: KOPIA)을 기념하고, 한 단계 도약을 선포하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코피아(KOPIA) 15주년 기념, 화합과 상생을 위한 협력 강화'를 주제로 23~24일 이틀간 서울과 전주에서 열린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22개국 협력 기관장을 비롯해 농업 분야 고위급, 공적개발원조(ODA) 관련기관 관계자 등 국내외 주요 인사 100여 명이 대거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코피아(KOPIA)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기술 발전과 미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첫날인 23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정책 연수회(워크숍)에서는 농촌진흥청 조재호 청장의 개회사와 코이카(KOICA) 홍석화 상임이사와의 축사에 이어 협력적 동반 성장을 골자로 하는 KOPIA 2.0 선포식을 거행한다. 특히 파키스탄, 몽골과 코피아

(KOPIA)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에콰도르의 한 중남미농식품기술협력 협회(KolFAC) 가입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및 외신기자 정책간담회도 있을 예정이다.

둘째 날인 24일에는 우리나라의 농업기술 수준을 체험할 수 있는 연구 현장으로 농촌진흥청(전주) 농업과학관, 스마트온실, 농기계전시관 등을 방문한다. 이 밖에 한국 농업기술의 국제사회 기여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농촌진흥청 공적개발원조 성과 전시회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목표인 빈곤퇴치(SDG 1)와 기아 종식(SDG 2)에 기여하기 위해 2009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전 세계 22개국에서 코피아(KOPIA)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국외농업기술과 유은하 과장은 "올해 코피아 15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에 우리나라의 농업기술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농촌진흥청은 농업을 매개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를 희망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기술 협력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상공회의소는 23일 상의회관 중회의실에서 '정책개발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전주상의, 정책개발자문단 출범

행정·기업지원·법률·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 구성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23일 상의회관 중회의실에서 '정책개발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전주상공회의소 정책개발자문단은 행정, 기업지원, 법률, 금융, 소방안전 언론 등 각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주상의의 주요 사업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개진을 통해 컨트론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허남석 전남 곡성군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위촉장 수여와 전주상의 제25대 의회 공약에 대한 자문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자문 및 토론시간에는 완주산업단지 활성화 및 편의도모와 관련하여 완주산업단지지원담당관 발령으로 완주산업단지기업들의 애로수렴과 서비스 지원 등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오는 10월 전주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아비즈니스대회와 관련하여 지역 상공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할 것이며, 대회 개최를 통한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당부하였다.

김정태 회장은 전주상공회의소의 중요한 정책결정이나 사업개선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정책개발자문단이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 자문단의 고견을 듣고 합리적인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상공회의소 정책개발자문단(위원장 허남석 전 곡성군수)은 정기적으로 격월에 회의가 있을 예정이며, 위원으로는 △김한광 전 전주MBC 사장 △손경호 전 전주완산·덕진소방서장 △유길종 변호사 △전대식 전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정원탁 전 전북중소벤처기업청장 △한준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현정기 전 전주상공회의소 부장이 위촉되었다. /김옥기 기자



NH농협 순창군지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지부장 이병희)는 지난 19일 제62회 순창군민의 날(군민화합 한마당축제) 행사장에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이병희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장 순창관내 4개 농협 조합장 및 임직원 등이 참석하여 고향사랑기부제 리플릿을 나눠주며 홍보활동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이병희 지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발전과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협 도회 회장단, 새만금개발공사·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방문

지역건설업체 수주물량 확대 요망·제값 시공 여건 조성 등 요청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 회장단은 지난 22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안경호)을 잇달아 방문, 공사물량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소재철 회장은 새만금개발공사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2차전지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 확대, 정부의 새만금사업 가속화를 위한 지원 약속 등으로 전북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기반시설 확대와 투자환경 제고를 위한 개발전략이 마련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긴밀한 협업을 요망 드린다"며 "전북 건설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새만금 사업에 최대한 지역업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의 간담회에서는 "지역 건설업체가 물량부족과 공사비 부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제값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여건 조성하고 공정한 발주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바란다"고 밝히며 "지역 건설업체도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품질 제고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장은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 추진시 '새만금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적극 활용해 최대한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안경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도 "고급리와 고물가 등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등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농협, 영농발대식·농촌일손돕기 개최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23일 금안농협 농기계수리센터서 2024년 전북농협 영농발대식 및 농촌일손돕기 행사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었음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영농지원에 총력적으로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영일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이정환 농협은행 전북본부장 김원철 농협중앙회 수석이사(부안농협 조합장)를 비롯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정성주 김제시장, 김명자 김제시의회 의장, 내인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금안농협 농가주부모임 강요태 회장 등

300여명이 동참하여 영농을 준비하는 농민들을 격려하고 올 한해 풍년을 기원했다.

전북농협은 농촌 청년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부족한 영농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농·축협에 23억원 규모의 영농기계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대식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평풍밭에서 팥콩심기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으며,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장 주변 환경 정비를 실시하였다.

전북농협은 농촌인력문제 해소를 위



전북농협은 23일 금안농협 농기계수리센터에서 2024년 전북농협 영농발대식 및 농촌일손돕기 행사를 열어 영농지원에 총력적으로 나설 것을 결의했다.

해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등을 통한 영농인력 15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경진원, 해외 온라인 멀티채널 판로지원 참여기업 모집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지난 22일부터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유통채널) 및 면세점 온·오프라인 입점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조시설 보유기업이거나 자체 브랜드를 보유한 도내 중소기업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유통채널) 입점 및 면세점 온·오프라인 입점 희망기업으로 모집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경쟁력 있는 우수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브랜드사 라이브커머스 진

행 및 콘텐츠 제작지원으로 패션과 뷰티 등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수출관로 개척을 위한 해외 온라인 멀티채널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도내 기업의 판로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모집기간은 5월 13일까지이며, 접수 방법 등은 전북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www.jexport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업참여 문의는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마케팅팀(063-711-2034) 문의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